

김기남
김초롱
김희진
이민행



라온아띠 라오스팀

I'm fine **thank you!** And you?

목차



01 / 화합의 대 축제
나케 오프닝

03 / 깊은 산골 마을
나케

05 / 유일한 도시 근처
푸딘댕

02 / 권다가 물 맞아요
비마이
(Lao New Year)

04 / 따뜻한 마을
나몬느아

06 / 행복한 마을
비앙사마이



이 / 화합의 대 축제

나케 오프닝

김기남

김초롱

김희진

이민행

이 / 화합의대축제
나케 오프닝





4월 2일 나케 유스 센터 오픈 축하를 위해 여러 마을, 여러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화합의 대 축제

나케 오프닝



나케를 비롯해 푸딘댕, 나몬느아, 비앙사마이, 폰송 이외에도 여러 단체,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나케 유스 센터 오픈**을 축하해주었다.

특pecially 이 날은 **버팔로**를 잡아 축제에 온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다.

버팔로... 너희는 먹어 봤니?



화합의 대 축제

나케 오프닝



각 마을 사람들은 전통 춤을 추며 센터 오픈을 축하했다.

화합의대 축제

나케 오프닝



이 날 수 많은 예쁜 여성들 때문에 민행이와 기남이는 잠을 못 이뤘다고...ㅎㅎ



02 / 겐다가 물 맞아요

비마이

(Lao New Year)

김기남
김초롱
김희진
이민행



02 / 김다가 물 맞아요

비마이 (Lao New Year)



4월 13일 부터 16일까지는 라오스의 새 해, **비마이**.

사람들은 강가로, 거리로 나와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새 해를 맞이했다.



거리를 걸으면 누구라도 사정없이 물을 뿌리는 이 곳.
그래도 행복하게 웃으며 서로에게 인사를 했던 이 곳, 라오스였다.

걸다가 물 맞아요

비마이



라오스 하면 블루라군.
블루라군 하면 라오스.

새 해를 맞이해 우리는 관광지
블루라군에 갔다 왔다.

블루라군에 묘미는 나무 다이빙!
뛰는데 6분이 걸린 초롱이
기함은 우렁찻던 기남이
머리에 미역을 달고 나온 희진이
온갖 제주 부리는 민행이

그래도 우리는 결국 모두 뛰었다.



03 / 깊은 산골 마을

나케

김희진

03 / 깊숙한 산골 마을

나케





4월에 풍송 마을을 떠나 나케 마을로 이사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달리자 60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 나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깊은 숲 속에 마을이!

정말 예쁜 마을 나케

다른 마을을 거치지 않고 산에서
바로 흘러온 물이라 물이 무척 맑다



나케는 산길을 한 시간 남짓 걸어야 만날 수 있는 숲 속 마을이다. (그래서 인터넷은 터지지 않는다 T_T...)

다문화 국가인 라오스의 세 민족(라오족, 몽족, 크무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조용하고 예쁜 마을에 내가 살게 됐다!

나케엔 초등학교만 있어요

나케 학생들의 생활상



이 높은 평지가 바로 나케 초등학교의 운동장!
더운 날씨에도 아이들의 놀이는 끝날 줄을 모른다.

중고등학교는 방비엥 시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나케 마을 학생들은 이 스쿨버스를 타고 통학한다.
아침 스쿨버스 시간은 무려 7시... 기상 시간은 5시 반 정도.



마을 주민들이 직접 지었다고?!

나케 유스youth 센터

한낮엔 말도 안 나오는 짙은 더위에
지쳐 잠들었던 우리들...



내가 활동 중인 나케 유스 센터는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을 주민들이 청소년을 위해 손수 지은 건물**이라고 한다.
보고서 앞쪽에 소개한 '나케 오프닝'을 한 장소가 바로 이 곳이다! 라온아띠도 나케 유스 센터 건축을 도왔다 ☺

매일 5시 반부터 시작되는

한국어 수업



초등학생들이 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간단한 회화와 한글 공부를 진행 중이다.
'가, 나, 다, 라 마...' 처음 보는 글자가 낯설
법도 한데 아이들은 그림 그리듯 재미 있게
따라 쓴다.

나케 유스 센터에서 월-금요일 5시 30분에
한국어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 처음엔
한국어 수업을 열 생각이 없었는데, 학생들이
원해서 시도하게 됐다. 결과는 대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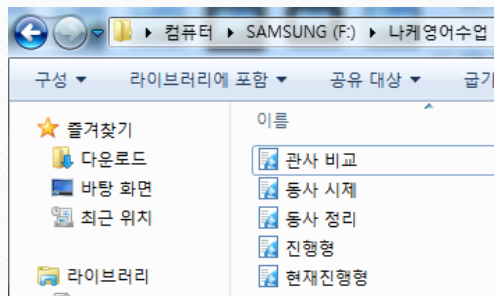
얼마 전 센터를 방문한 한국인을 만나자, “밥
먹었어요?”라는 한국어 질문에 **한국어로 “네”**
라고 대답하던 아이들. 한국어가 조금씩 늘어
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뿌듯하고 아이들이
기특하다!

문법 어려워요... 기억이...

영어 수업



센터 안의 도서관은 매일 저녁 중고생들을 위한 **영어 문법 강의실**로 변신한다. 다들 먼 거리를 통학하고 오면 피곤할 법도 한데 절대 졸지 않고 끝까지 수업에 참여한다!



← 쌤여가는 유인물 파일 만큼
네 지식과 눈물도 쌤여간다 :D!

한국어로 설명하기도 어려운 영어 문법을 영어와 라오어로 설명하기란 너무도 막막... 덕분에 매일 '**문법을 공부하고, 어떻게 설명할지를 계획하고, 그걸 다시 영어로 바꾸고, 학생들에게 나눠줄 유인물을 만들고**'를 반복하게 됐다...

나케 마을은 깊은 산 속에 위치하고 있어서 산길을 한 시간 정도 걸어야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개인 오토바이나 차를 제외하면(차를 가진 집은 거의 없다)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맞춰 운영되는 스쿨버스가 교통수단으로는 유일한 곳이다. 매일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하고, 방비엔에 있는 학교에까지 통학을 하면 피곤해 실 법도 한데, 학생들은 스쿨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하면 바로 샤워를 하고 센터로 달려온다. 한국어 수업 45분, 영어 수업 45분 총 90분의 수업 시간 동안 단 1초도 졸지 않고 눈을 반짝이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확실히 알려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된다.

라오스는 지금 한여름이어서 매일 한낮엔 40도가 넘고 저녁에도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흐르기 일쑤다. 한국에선 매 여름 누렸던 에어컨도 달콤한 섹이크도 없지만 이제 더위에도 적응이 됐는지 뜨거운 선풍기 바람을 쐬며 책을 읽고 수업 계획을 짜고 라오어 공부를 하는 게 일상이 됐다. 한국에서는 땀 나는 걸 무척이나 싫어했던 내가 땀이 흐르든 말든 내 할 일을 하고 책을 읽는다니! 한국에서는 갈끔 땀다고 구박 받던 내가 소똥을 밟아도 신경 쓰지 않게 됐다니!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하나 씩 알게 되고, 라오스에서 살지 않았더라면 얻지 못했을 소중한 기억들을 매일 일기장에 기록하면서 무엇보다도 '나'에 대해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처음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너'를 배우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나'를 배우고 있었다.





04 / 따뜻한 마을

나 몬 느 아

김초롱

04 / 따뜻한 마을

나무노아





마을 주민이 되어 살게 된지 2달 짜인 **나몬느아**. 산골 마을이라 불편함을 느끼지만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

나몬느아 학교 운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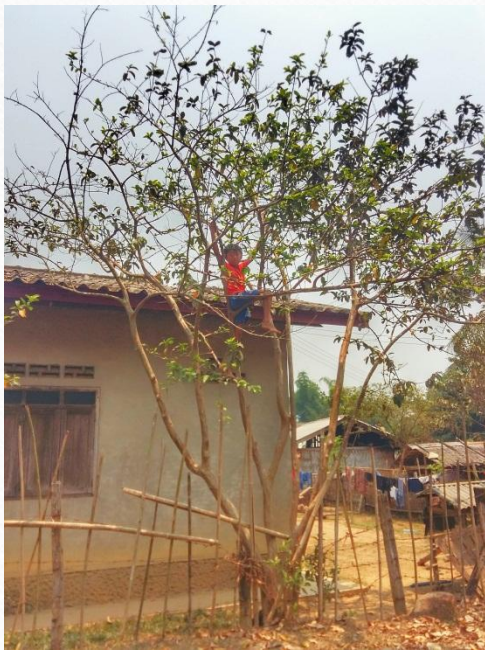
여가 시간 보내기



여가 시간에 가끔 **배드민턴**과 **배구**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마을 사람들이 운동을 좋아해서 항상 비어 있지 않는 초등학교 운동장!

우리집 여섯째 동생 '버우'

'버우'는 재주꾼



새, 개구리, 물고기, 벌집, 쥐 등 뛰어난 사냥실력(?)으로 모든 식량을 확보 하는건 물론 나무 타기와 우리 집 닭 관리를 하고 있는 '버우'. 따라다니면 재미난 일들이 많아 항상 즐겁다.

반자이의 개인 에세이 #1

#1. 씨앗 그리고 싹틈

나몬느아에 작고 예쁜 씨앗을 하나 심었다. 매우 크게 될 씨앗 하나를. 씨앗 이름은 '까오'. 요녀석이 매일 아침, 저녁, 주말까지 시도 때도 없이 날 귀찮게 한다. 본인이 말하길 자기는 영어 공부를 시작한지 1달 하고도 19일 밖에 되지 않았으며 영어를 잘하고 싶다고 했다.

상태는 심각했다. He와 She 구분도 못했고 I'm과 I am이 같은 건지 모르는, 그야말로 영어 밑바닥 상태였다. 까오는 매일 아침 나를 찾아와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졸라댔다. 서로 말이 잘 안 통하니 뭘 하나 설명 하는 데에 남들보다 몇 배가 걸렸다.

그렇게 거의 매일 2시간씩 과외를 시킨 결과 아직 2주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를 도와서 중고등부 수업을 하고 있다. 처음으로 수업을 같이 진행하던 날 스스로에게 놀라고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도 어찌나 뿌듯하던지 한국어를 알아 들었다면 "아이구 예쁜 내새끼! 장하다!" 라고 100번은 외쳤을 텐데! 까오가 정말 노력한 만큼 많이 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수업도 꽤나 재미있게 잘 진행했다.

요즘 농번기라 스텝친구들이 바빠 센터에 잘 오지 않아 혼자 수업을 하기 벅찼었는데, 까오가 있는 덕에 이제 수업 하는 게 훨씬 덜 부담스러워졌다. 요즘은 매일 아침 까오를 가르치고, 가르쳤던 걸 토대로 그날 수업을 한다. 까오는 복습도 할 수 있고 수업도 할 수 있고 1석 2조인 셈이다.

내가 한국에 돌아가고 나서도 까오가 뒤를 잘 이어서 수업을 해주길 기대하며 매일 기쁜 마음으로 씨앗에 물을 준다. 나몬느아의 큰 나무로 성장하기를 꿈 꾸며, 까오를 통해 왜 라온아피가 사람을 보내며, 왜 내가 이 곳에 왔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기도하다.

뽀자이의

개인 에세이 #2

#2. 또 한번의 감사 그리고 반성

나몬느아는 산골마을이라 정전이 잘된다. 특히 수업을 하는 센터의 불이 자주 나가는데, 벌써 불이 안 들어 온지 1주일이 넘었다. 6시만 되도 칠판 글씨가 잘 안보이는데 학생들은 아무 불평 불만 없이 수업을 듣는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은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까오는 계속 수업을 하고 싶어한다. 급기야 내가 의자에 올라가 후레쉬 불을 비춰주며 계속 수업을 진행했다. 결국 이날 평소보다 더 긴 시간인 1시간 50분 동안 수업을 했다. 어떠한 어둠과 불편함도 이들의 열정을 이길 순 없었나 보다.

우리나라처럼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기 싫어 하는 학생들과 너무나도 비교되면서도 한편으론 매우 씩씩했다. 사람은 열악 할 때 더 간절해지며, 가진게 많아 풍족하면 감사한지 모르고 그냥 흘러 보내게 된다. 아니 오히려 배부를 소리를 하며 반항하게 된다. 나 또한 배부른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누가 40도에 육박하는 이 날씨에 선풍기 하나 없는 어두운 교실에 공부를 하러 올까?? 여기 학생들을 통해 많은 걸 배우고 반성하게 된다. 그리고 함께 땀 흘리며 가르치고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



05 / 유일한 도시 근처

푸딩당

이민행

05 / 유일한 도시 근처

푸딘당





4월 16일 부터 살게 된 마을 푸딘댕.

도시와 시골의 경계. 하지만 **사람냄새**로 흠뻑 젖어있는 마을 **푸딘댕**.



즐길 줄 아는 푸딩탱 아이들

마을 수업 시간

저녁 5시부터 7시까지(7시에 끝난 적은 없다).
마을 센터에선 **모든 종류의 수업**이 진행된다.

주로 **영어 수업**을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함께 놀기도, 춤을 추기도, 계곡에
놀러 가기도** 한다.

즐길 줄 아는 푸딩탱 아이들

마을 수업 시간



아이들 대장님

이름 : 끼앙

나이 : 19

특기 : 아이들 벌칙주기, 춤 추기, 한국어 따라하기

취미 : 아이들과 놀기, 기타 배우기(나에게)



카리스마 작렬



즐길 줄 아는 푸딩땡 아이들

마을 수업 시간



일명 **Game Class!**

놀면서 **협동심, 배려심** 등 뭐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 있다.

벌칙은 친구들 앞에서 연기하기, 포즈
취하기 등 단순한 벌칙보다는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다.

조는 연기 여우주연상



즐길 줄 아는 푸딩땡 아이들

마을 수업 시간



주말에는 Dance Class!

라오스 전통 춤부터 K-pop, Hip-hop까지!!

때로는 마을 쓰레기 줍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척척 잘 한다.





푸틴댕 주민이 되어가는

마을 살이

단지 신기하고 특별한 외국인이 아닌
이 마을에 사는 주민이 되기 위해
내 모든 생활 패턴을 푸틴댕 사람들에게
맞추었다.

가족에게는 가족이, 아이들에게는 친구가,
마을 사람들에게는 주민이 되기 위해.

푸딘댕 주민이 되어가는

마을 살이



라오스 하면 빠질 수 없는 술!

이 곳 푸딘댕 사람들도 술을 무척 좋아한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마을 어딘가에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곤 한다.

특별한 일이 없는 아침에는 가족들과
농장에 갔다. 요즘 고추 철이라 고추를
재배하는데 즉석에서 먹어보라고도 하신다.
유기농이라 믿고 먹는데.... 맵다.
그래도 꼭 참고 먹어본다...



심심할 땐 마을 센터에서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과 그림도 그리고 낙서도 하며 논다.

언어 소통은 안 되지만 그저 즐겁게
웃으면서 함께 노는 아이들!

푸틴댕 주민이 되어가는

마을 살이



농장에 가려면 이 멋쟁이 아저씨가 끌어주는
배를 타고 가야 한다.

이제는 이 멋진 계곡에서 샤워를 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물론.... 다 벗진 않는다. ㅎㅎ



푸틴댕 주민이 되어가는

마을 살이

!!것 줄래 기네!!



친구 끼양이 만들어 준 팔찌! 나도 만들어서 선물해줬다.

푸틴댕 주민이 되어가는

마을 살이



이제는 이런 광경이 놀랍지도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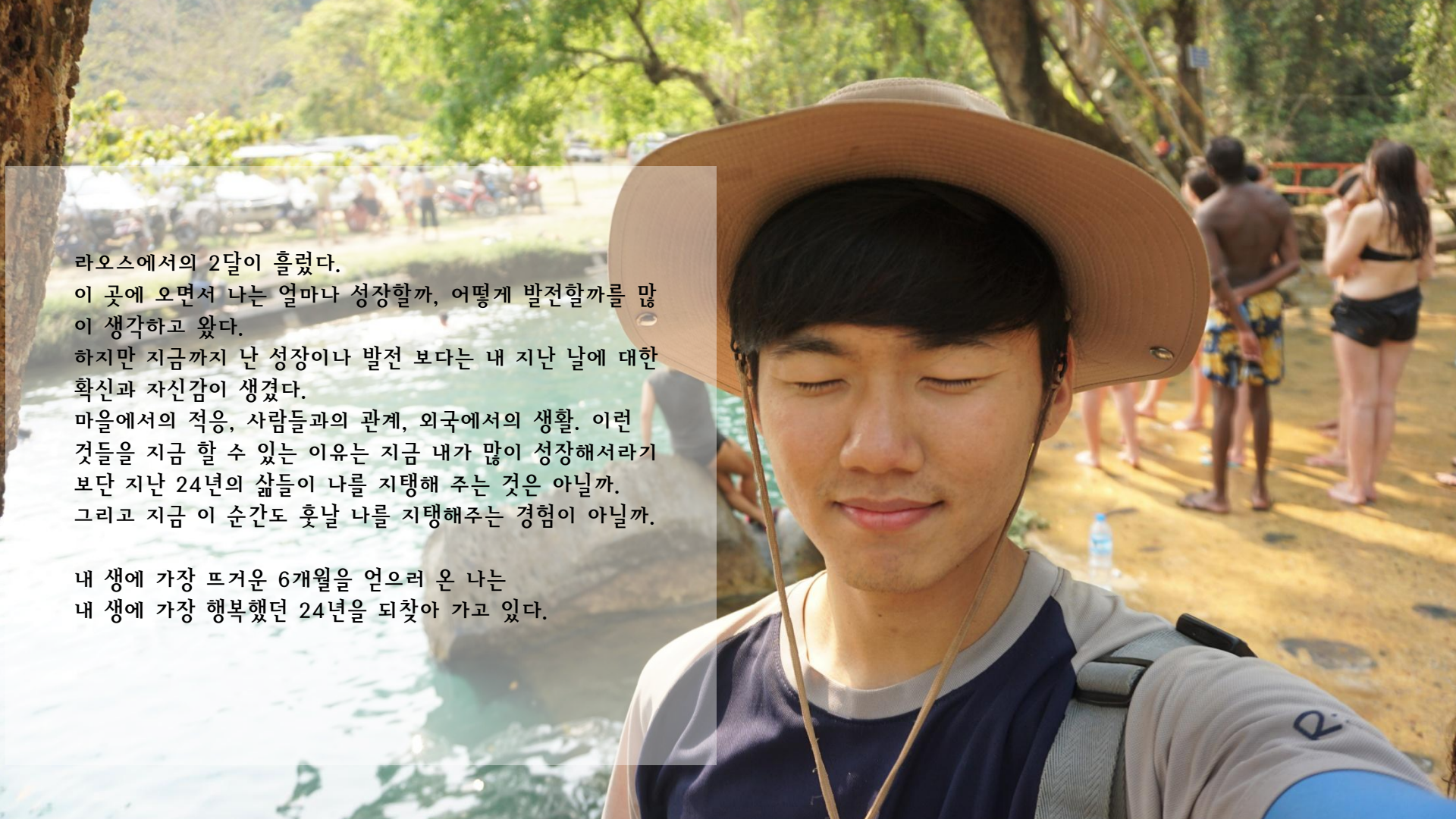
항상 밝은 미소로 나를 대해주는 마을 아이들.
이렇게 웃으면... 내 마음이 녹잖니....



라오스의 새해 비마이, 새로운 마을에서의 적응.
이 곳에서의 4월은 무척이나 빨리 흘러갔다. 한국에서는
꽃이 피고 봄 비가 내리겠지만 라오스의 4월은 때로는
여전히 덥고 때로는 비바람이 매섭게 몰아친다.
한국에서는 따뜻한 계절 속에 예쁘게 핀 꽃을 구경하겠지만
이 곳은 너무 더워 마을 밖을 벗어날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화려하고 예쁘진
않지만 마당에 핀 풀들을 보며 더위를 식혔다. 그리고 마을
아이들과 계곡물 속에 있던 시간이 많아졌다.
아마도 4월이 따뜻한 이유는 자연이든, 사람이든 무언가와
어울릴 수 있어서가 아닐까.

날씨는 무척이나 덥지만 난 이 곳 라오스에서 어느 때보다
따뜻한 4월을 보내고 있다.



라오스에서의 2달이 흘렀다.

이 곳에 오면서 나는 얼마나 성장할까, 어떻게 발전할까를 많이 생각하고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난 성장이나 발전 보다는 내 지난 날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생겼다.

마을에서의 적응, 사람들과의 관계, 외국에서의 생활.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내가 많이 성장해서라기 보단 지난 24년의 삶들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훗날 나를 지탱해주는 경험이 아닐까.

내 생애 가장 뜨거운 6개월을 얻으러 온 나는
내 생애 가장 행복했던 24년을 되찾아 가고 있다.



06 / 행복한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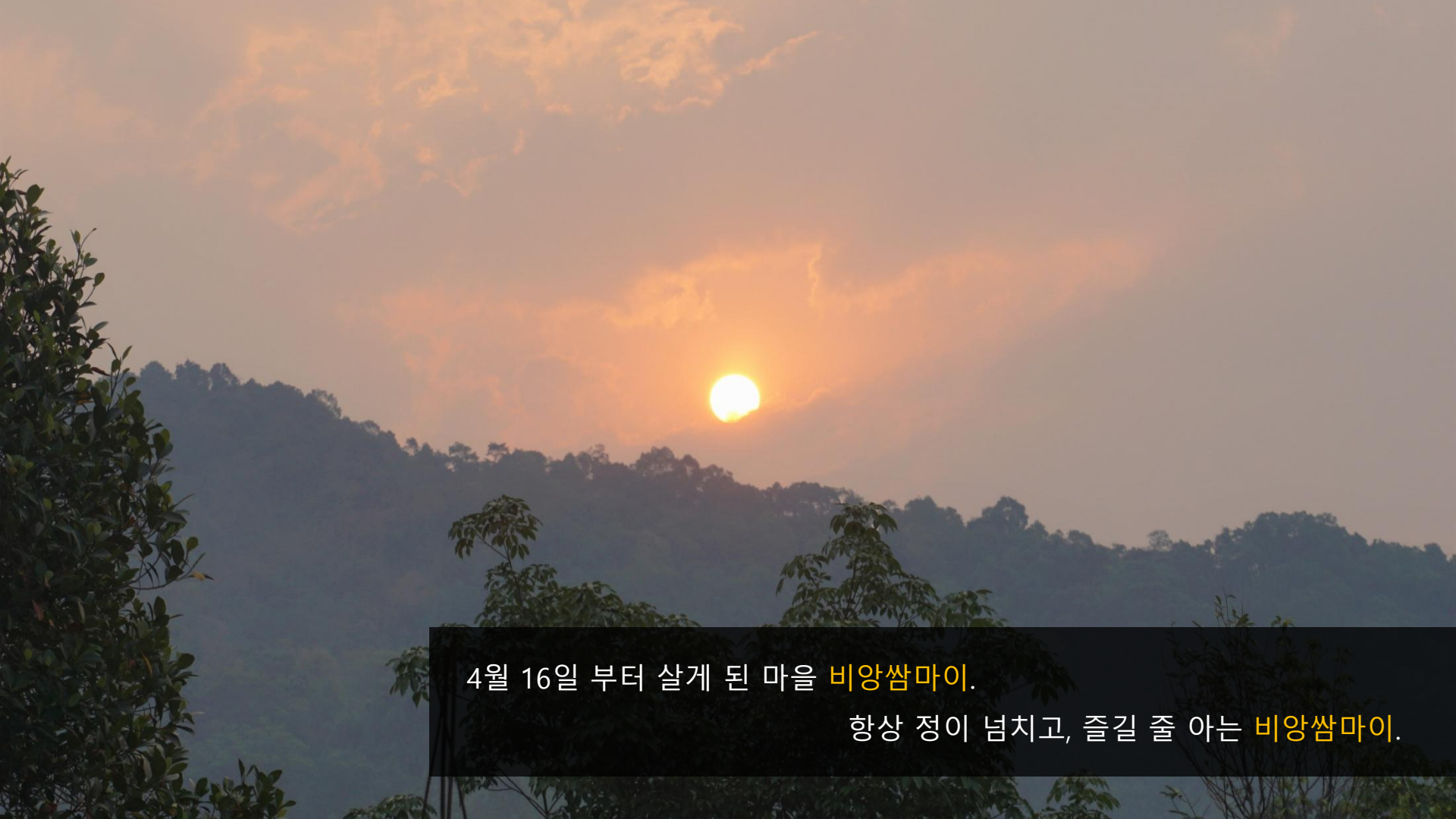
비앙사마이

06 / 행복한 마을

비앙사마이

김기남





4월 16일 부터 살게 된 마을 **비양쌈마이**.

항상 정이 넘치고, 즐길 줄 아는 **비양쌈마이**.

마을센터에서 진행되는Class

한국어 수업



평일 7시~8시 **한국어 수업**. 카약킹과 튜빙 등 각종 여행사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이 온다. 라오스를 찾는 한국인이 늘어나면서 한국어에 대한 열정도 뜨겁다.



평일 5시~6시 아사와 함께 하는 **영어수업**. **초등학생**을 위한 단어위주의 수업이다. 아사가 번역과 읽기 전반적인 것을 맡아 진행한다.



주말 6~7시 아사와 함께하는 **댄스교실**. 초 등학생들에게 크몽의 전통댄스와 k-pop을 아사가 가르쳐 준다.

HAPPY BIRTHDAY



한국어 수업이 끝 이나고, 학생들이 비바람을 뚫고 케이크를 사주고 파티를 열어 주었다.

마을 친구들과 함께

여가시간



아사와 친구들과 함께 탐푸캄(블루라군) 고고씽~.



그리고 탐짱도 고고씽~!



나몬느아마을에서 한달 반을 살다가 비앙쌘마이마을로 이사를 했다.

처음에는 이사 하는 게 싫었다. 이제 마을에 대해 조금 알았다고 생각했고,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다. 그래도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이동이 필요했고 비앙쌘마이마을로 오게 되었다.

약간의 두려움은 기대로 바뀌었고 너무 정이 넘치고 사랑을 많이 받았다. 우리마을은 깽완과 파파야 샐러드를 만들 때면 항상 친구들이 10~15명 까지 모인다. 그리고 다 함께 뜨거운 깽완을 호호 불면서 먹고 매운 파파야 샐러드를 스~습 프리(맵다)하며 웃으며 먹는다. 이런 분위기가 좋고 행복하다. 그리고 여기서 만난 새 가족들, 특히 아사와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 행복과 웃음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웃음은 항상 사랑스럽다. 내 그릇에 비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 벅차다. 사랑을 어떻게 받을 줄 모르겠다는 물음에 와락 안아 버리라고 한다.

근데 어떻게 해야 안을 수 있는지? 그냥 팔 벌려 안으면 되는건지? 여기서 여자를 안아도 문화상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다.

+ / 저희는 다시 마을로 갑니다!

5월 보고서에서 만나요 😊